

>>> 코스콤

증권IT 업무 30년의 노하우로 시장 개척

코스콤(www.koscom.co.kr 대표 이종규)은 '세계 금융IT 솔루션 리더'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IT 분야 30년 노하우를 확대해 금융IT 분야에서의 성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다.

최근 들어서는 수익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권 유관기관으로의 공기업 이미지를 벗고 민영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코스콤으로 사명을 변경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코스콤은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 전산업무 개발과 수탁, 용역을 제공하는 증권IT 전문 회사로, 지난 79년 증권시세 게시 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전산을 모태로 한다. 코스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증권사 전산업무 개발 업무 외에 증권정보 수집, 가공 판매와 전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훈련과 이와 관련 있는 용역 제공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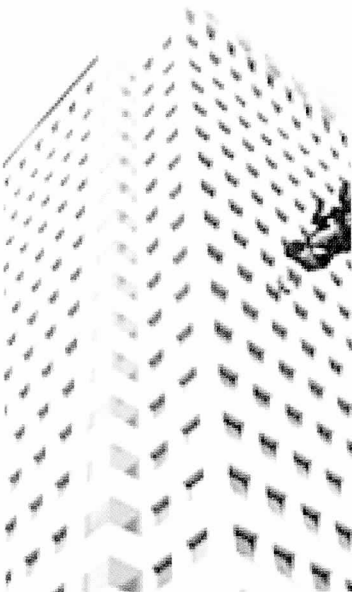
코스콤의 주력사업은 ▲증권·선물관계기관, 증권·선물사 및 기타 단체 정보처리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 보수 등 시스템 통합서비스 ▲증권, 금융 및 경제관련 정보 수집, 가공, 제공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등이다.

현재 직원수는 496명. 2002년에는 602명까지 증가했으나 수익경영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였다. 적은 인력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제도 도입 등을 통한 조직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수익원 다변화 위한 노력 지속

코스콤의 지난해 추정매출은 1816억원으로 전년(1767억원) 대비 소폭 성장했다. 비록 소폭의 성장이지만 이는 코스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2002년 이후 계속됐던 매출 감소세가 다시 성장세로 반전된 때문이다.

2002년 192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증권사의 ASP 서비스 회원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2005년까지 매출이 8% 가량 줄었다.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코스콤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코스콤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장 공략 분야를 확대해왔다. 재해복구센터, 퇴직연금시스템 등 국내 사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최근 코스콤은 증권사 외의 금융기관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분야에서는 1금융권부터 서민금융기관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사업을 수주했다. 작년 5월에는 신한금융그룹의 재해복구사업을 수주했으며 11월에는 예금보험공사 재해복구센터를 가동시켰다. 이밖에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재해복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스콤은 해외 시장에서 지난 2003년 증권업계에서는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출, 2004년 4월 중국 사우스차이나증권 고객원장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했다.

코스콤은 사업 확대와 함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다양한 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98년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1 인증을 시작으로 2002년 증권업계 최초로 CMM인증을 받았다.

이어 2005년 11월 CMMI레벨4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증권사 운영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6년 5월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ITSM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했다. ITSM은 코스콤이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SLA(서비스 수준 협약)를 적용하는 토대가 됐다. 코스콤은 이런 기술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2006년 3월에는 글로벌부문 소프트웨어 품질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증권사 ASP 신버전 출시로 영업 확대

코스콤에게 2007년은 매우 중요한 해다. 코스콤은 올해 매출 2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코스콤의 증권·자산운용사 ASP(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임대) 서비스 새 버전인 파워베이스도 출시된다. 파워베이스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돼 시스템 유연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증권업계 1400개의 용어사전이 제공되며 정보계 부문도 강화돼 SFA(영업지원시스템) 등 새 기능도 추가됐다.

코스콤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 증권·선물시장 차세대시스템 개발 시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으로 자본시장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활발할 전망이다.

파워베이스는 자통법으로 급변할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도입, 시스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또 코스콤은 증권업계가 TCO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부문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는 조직개편을 통해 영업체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인터뷰_코스콤 이종규 사장

2007년 창사 이래 최초 2000억대 매출 목표

2007년 시장전망과 코스콤의 경영방침은

내년에도 증권·선물시장에 많은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거래소 차세대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고객사들의 요구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위기이기도 하다. 올해는 '도전, Jump 2007'이란 경영목표 아래 창사 이래 최초로 2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올해 코스콤의 사업 전망은

먼저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매출층대가 예상된다. 또 증권업계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의 본격 추진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대비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코스콤은 이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통해 주력사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금융 정보사업은 증권·선물시장의 전망이 밝아 매출의 소폭 증대가 예상돼나 정보시스템 채구축으로 이익은 감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조직 운영에 관한 계획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도약을 위한 경영체제 선진화 및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30년을 준비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조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